

나주 미래산단 조성 무산 위기

보상가 싸고 토지 소유자와 마찰 ... 착공 내년 3월로 연기

전국 최초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될 예정인 나주미래산단 조성사업이 보상가를 둘러싼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로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나주시는 동수동과 왕곡면 양산리 일대 295만㎡에 사회건설을 비롯해 남영·혜성건설 등이 3천300억 여원을 투자하는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 고시를 마친 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주시 금전면 혁신

도시 보상가에 준하는 토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감정평가가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조건부로 감정평가를 수용, 토지 소유자별 감정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조건부로 감정 평가를 수용한 만큼 평가 가격이 낮을 경우 또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처럼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사가 사업 착수를 포기할 수도 있어 나주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사회건설 정진욱 대표는 "토지 보상가가 높을 경우 조성 원가도 상승해 분양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당초 12월 착공 예정이었던 착공 시기가 주민들과의 감정 평가를 둘러싼 이견으로 내년 3월로 연기 돼 사업 추진 여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가정책사업이 아닌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건설사가 조성원가의 6%내에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 돼 있다"며 "토지 보상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감정 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전에 보상가를 제시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산단지가 들어서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말했다.

한편 미래산단은 나주시 왕곡면 일대 290만㎡에 조성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영광원전 남부 세역 年 200억원 영광·무안·신안·장성·함평 수혜

전남도 '원전 지역개발세' 활용안 확정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매년 200억 원씩 내게 되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을 비롯 원전과 인접한 무안·신안·장성·함평 등 5곳으로 결정됐다.

16일 전남발전연구원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조례의 '인접지역' 설정 기준을 원자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40km 이내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로

선정했다.

영광원전이 내는 지역개발세는 매년 2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65%는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이, 나머지 35%인 약 80억원을 이들 4개 시군이 사용한다.

종합계획이 수립된 2020년까지 영광군은 1천500억원을, 인접지역과 광역사업에는 약 1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영광원전으로부터 향후 반영구적으로 지역개발세

를 받는다.

'광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아트아일랜드 섬문화터미널 건립과 오토캠핑리조트 조성,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 및 통합방위 종합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단지 조성 등 9개(386억원)다.

'인접지역' 4개 지자체에서 제안해 우선순위에 선정된 사업은 30개. 무안의 경우 어류종묘 방류사업과 함해만권 바다환경 회복 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신안은 기후변화 대응 수목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파크 조성 등 7개 사업이다.

장성은 장성댐 재난도모 개선과 황룡 행복마을 재난대비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7개이고, 함평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원전피해 예방 시설물 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이다.

/재희홍기자 chae@kwangju.co.kr

'녹차꽃 향기'로의 초대

보성 녹차밭서 '차꽃 축제'

"녹차향보다 진한 녹차꽃 향기로 보성의 녹차밭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녹차마을 주민들이 가을에 꽃을 피우는 녹차 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

보성군에 따르면 18·19일 이틀간 녹차 밭이 집중 조성된 보성군 화천면 영천마을 차밭 일대에서 '제2회 더 소박한 차꽃 축제'가 열린다.

차꽃축제는 녹차 동호회인 일립차회 등이 지역 녹차 생산농

가와 애호가들이 중심이 돼 작년에 1회 축제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축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얀 꽃잎에 노란 꽃술이 소박하게 피어나는 보성의 차꽃은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11월 초에 절정을 이루는데 꽃과 열매가 함께 만나 마주 분다고 해 실화상봉수(實花相逢樹)라고도 불린다.

축제 기간에는 차 꽃차 시음은 물론 차 꽃차 만들기, 보성발효차 시식 등 봄에 열리는 대형 축제인 '다향제'와는 분위기가 다른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보성=선성근기자 sun@



영광 군 상징물 교체로 침체된 분위기 쇄신

영광군이 지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군 상징물을 모두 재·개정하고 표어와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한다.

영광군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상징물 변경 설문조사를 벌여 군화(郡花)→상사화, 군목(郡木)→참나무, 군조(郡鳥)→앵기갈매기를 선정했다.

불갑면 불갑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가 있으며 칠산도에는 앵기갈매기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또 '굴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굴비 원료가 되는 참조기

군어 참조기·군화 상사화로 표어·디자인도 새롭게 변경

를 새 군어(郡魚)로 정했다.

군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표어도 만들기로 했다. 영광군은 '천년의 빛 영광', 'Focus 영광', '해(海) 맑은 영광' 등 3개 표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말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광군이 이처럼 상징물을 모두 바꾸고 표어를 만들기로 한 것은 침체했던 지역 분위기에 새 바람

을 불어 넣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군수직을 둘러싼 세력 다툼의 결과로 전 군수가 구속돼 중도하차하고 보궐선거로 새 군수가 선출되고도 크고 작은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호 군수는 "영광 지역은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대규모 집단 희생사건이 발생하며 등 갈등이 지속됐던 곳"이라며 "주민 화합을 다지고 대의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차원에서 상징물과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화순에 전국 첫 '산약초 타운' 조성

50억 예산 확보 ... 동북면 유천리 모후산 일대

화순에 전국 최초로 '산약초 타운'이 조성된다.

화순군은 최근 산림청이 공모한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돼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산약초 타운은 화순지역의 풍부한 산약초와 한약초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민에게 한방체험 공간 제공 등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면 유천리 모후산 일대에 조성된다.

모후산 일대는 이미 지역특화 소득사업으로 약용식물 780여 ha와 산약삼 170여 ha를 재배하고 있어 산약초 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이 이미 다져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순군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확정을 위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북으로 가을철 몸 보신 하세요

강진군 마량면 앞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요즘 전복 수확이 한창이다. 마량항 일대는 물이 맑고 깨끗한 데다 주변에 있는 고금과 약산 등 섬들이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최적의 전복 양식지로 연간 5천kg의 전복이 생산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국무총리 표창

200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전국 1천600여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08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장흥 토요시장은 장흥군이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주 5일 근무제시행에 맞춰 지난 2005년 7월 전국 최초의 주말관광시장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값싸고 품질 좋은 한우고기 판매를 비롯해 할머니 장터, 전통 음식점, 토산품 판매장, 짬뽕골목 등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해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하루 평균 3천여명(성수기 7천~9천명)이 찾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도 개장 이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승했다.



장흥 토요시장은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의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때 전국 재래시장 중 '지역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형 시장'의 성공 모델로 보고돼 전국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이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장흥군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겨냥해 토요시장 내에 국제 상품장터, 테라스를 설치하고 전천후 전시 체험관, 놀이방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다문화 교류센터(아시아문화관)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

11215300-9999